화살

一九六一년九월호 (一四六)

Sept

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AUG 27 1962
Copy ____ 2

당 대회에 축하를 드린다

최 영근 그림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욱 좋다

리 철희

녀—사둔 령감! 안녕하슈?
그래 아직도 직장에 나가슈?

남—아직도라니…
로동당 시대엔 60이 환갑이 아니라 90이 환갑이란 말도 듣지 못했수?

녀—예— 기력이 장하시우…… 그런데 나드리라도 가는 길인가요?

남—왜 그러슈…음— 새옷을 입었다구?
그럼 왜정 때엔 토스레 옷도 없어서 온 식구가 옷 한벌을 번갈아 입고 나드리 갔지만 이런 좋은 로동당 세월이 되고 보니 철을 따라 갈아 입는다오, 패 부러운 게로군!

녀—부럽긴… 누가 그만 못해서…

남—내 말 좀 들어 보슈, 오층 양옥에 전등'불 휘황하고 수도'물이 찰찰 나오는 아빠트,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문화 주택 넓은 방에서 라지오 소리 들으며 사니 옛날 지주, 자본가, 량반, 정승, 제후가 부럽지 않소이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집 걱정 있겠나? 자식 키울 걱정, 일'자리 걱정 있겠수? 언제나 노래와 웃음이니 이건 진짜 상팔자지요.

녀—사둔 령감만 그렇게 사는 줄 아우? 공화국의 모든 사람이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욱 좋다고 노래하지 않소?

남—그렇지오. 언제나 행복의 노래 넘치는 로동당 세월은 얼마나 좋소! 난 중복 더위도 송도원 휴양소에서 보내면서 자꾸 살을 꼬집어 봤다오… 그래 농촌 살림은 어떻소?

녀—야단 났수다.

남—아니 재해라도 생겼소?

녀—지금이 어느 세월이라고 재해 소리를 하시우? 당과 수상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전기화, 수리화, 기계화 덕분에 산꼭대기 뙈발에도 생명수가 올라가고 기계로 농사 짓는 억년 흉년을 모르는 협동벌에 방정 맞을 재해라니요

남—그럼 무슨 야단이 났단 말이요

녀—4차 당 대회에 황금 전야를 선물했는데 곡식이 너무 잘 돼서 거둬 들이기 벅찰거란 말이외다.

남—좋은 세월이외다. 듣기만 해도 흡족하군요.

녀—우리 마을에 와 보슈, 모두 천석'군 만석'군 부럽지 않은 갑부가 되였다오.

남—정말 우리 살림 부러운게 없소, 옛날엔 먹일게 없어서 자식 낳는게 원쑤 같더니 인젠 인민 학교로부터 대학까지 마음껏 공부시키게 되고…

녀—옛날엔 탈이 나면 약 한 첩 못쓰고 황천을 가더니 인젠 탈도 나기 전부터 누구나 치료를 받으니 누가 장수하지 않겠소? 살림이 늘어 가고 웃음꽃 피니 이게 지상 락원이지오.

남,녀—어절씨구 로동당 시대 좋기두 하지오

남—3차 당 대회 후 만사 대길인데 이제 턱 4차 당 대회라! 당 대회는 우리 앞에 더 좋은 세월을 약속해 주니

녀—당이 가리킨 7개년 계획을 해 제끼는 날을 생각해 보슈

남—정말 꿈 속에서 꿈 꾸는 것 같겠소

녀—저기 저 대문을 좀 보시우

남—아니, 아빠트 거리에 무슨 대문이 있다구?

녀—아니, 저기 공산주의 황금 대문이 보이지 않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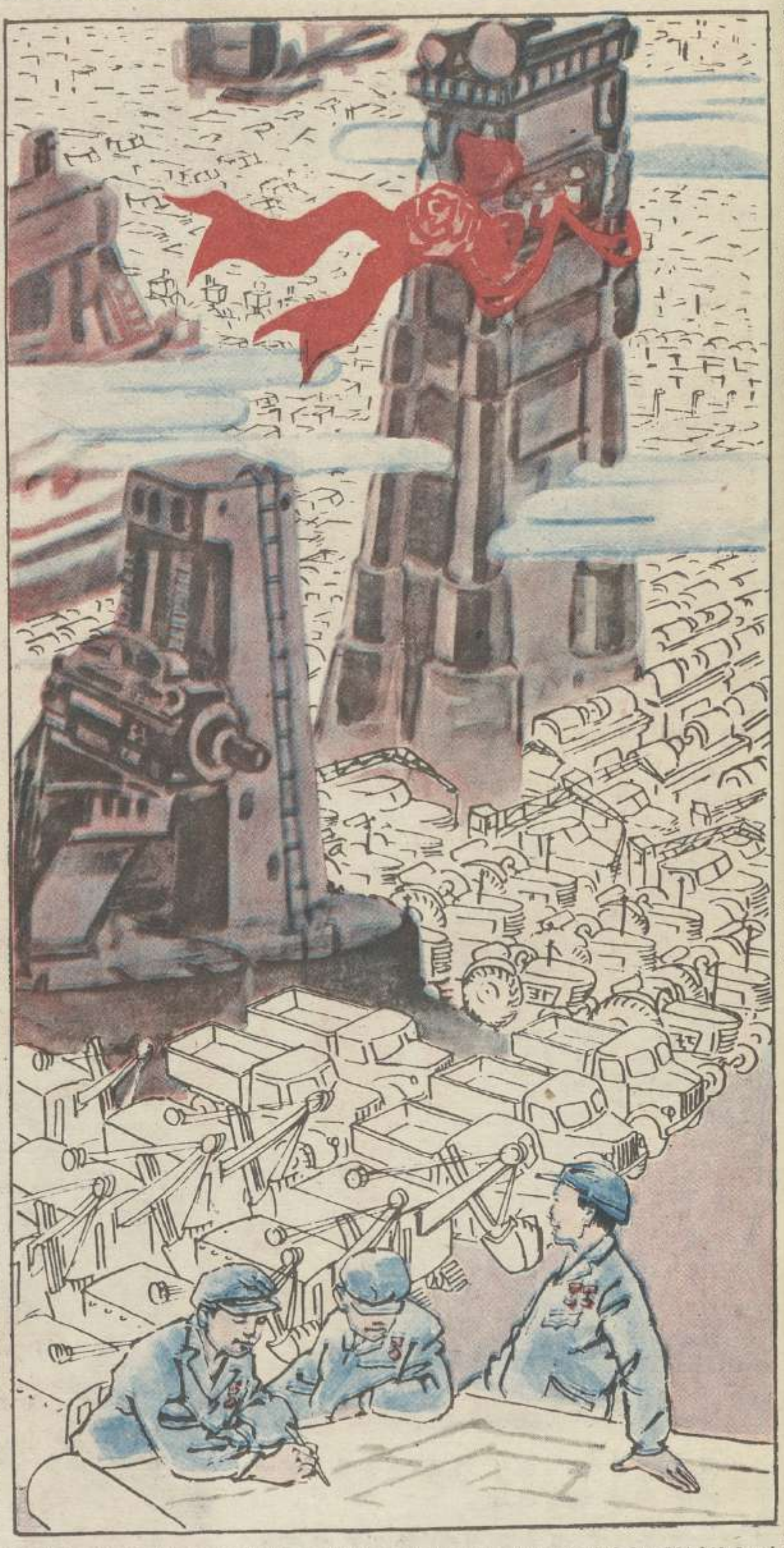
남—옳지, 4차 당 대회가 가리킨 이 길로 당과 수령님의 령도 따라 줄달음을 쳐 공산주의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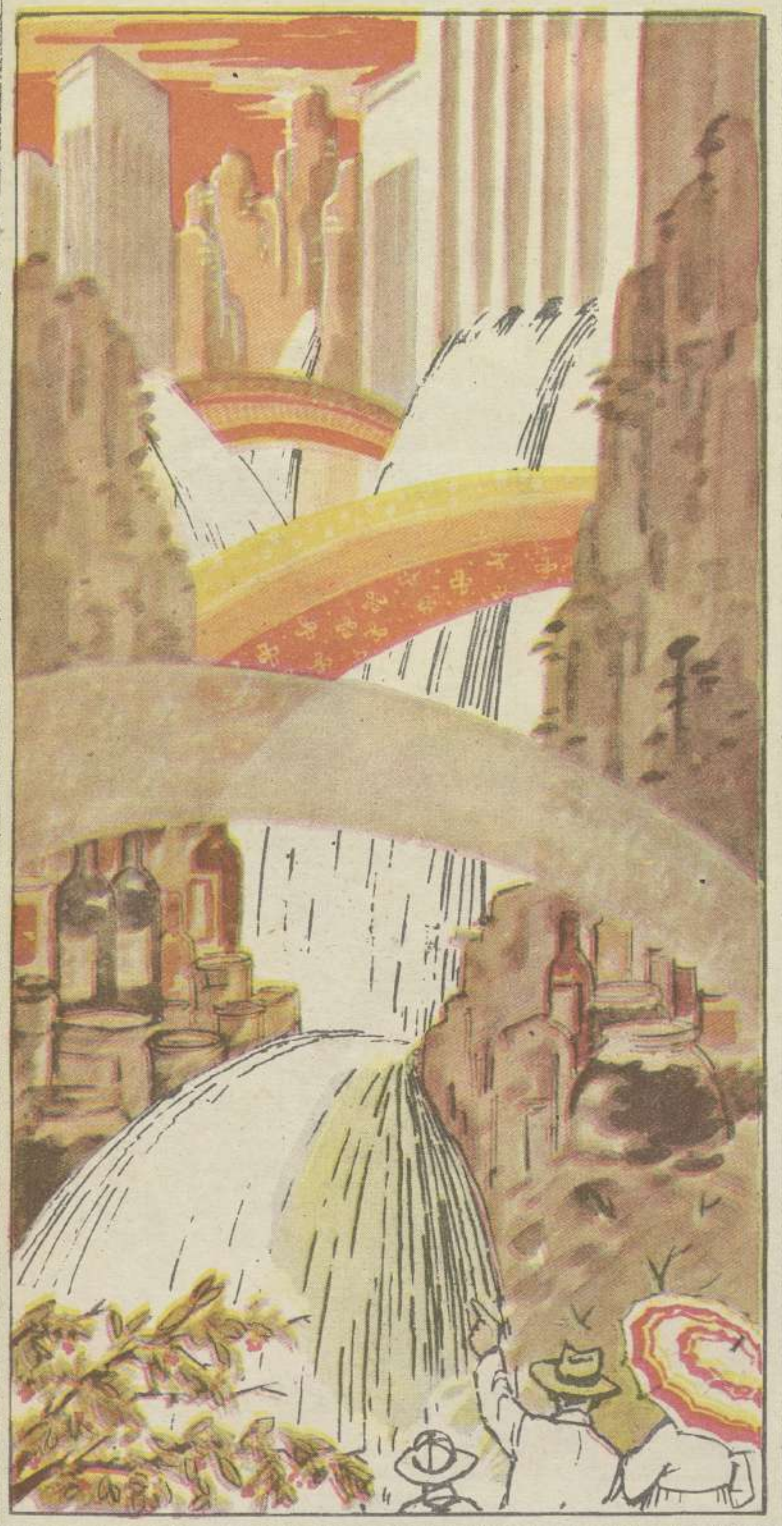
녀—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며 보다 행복한 래일을 앞당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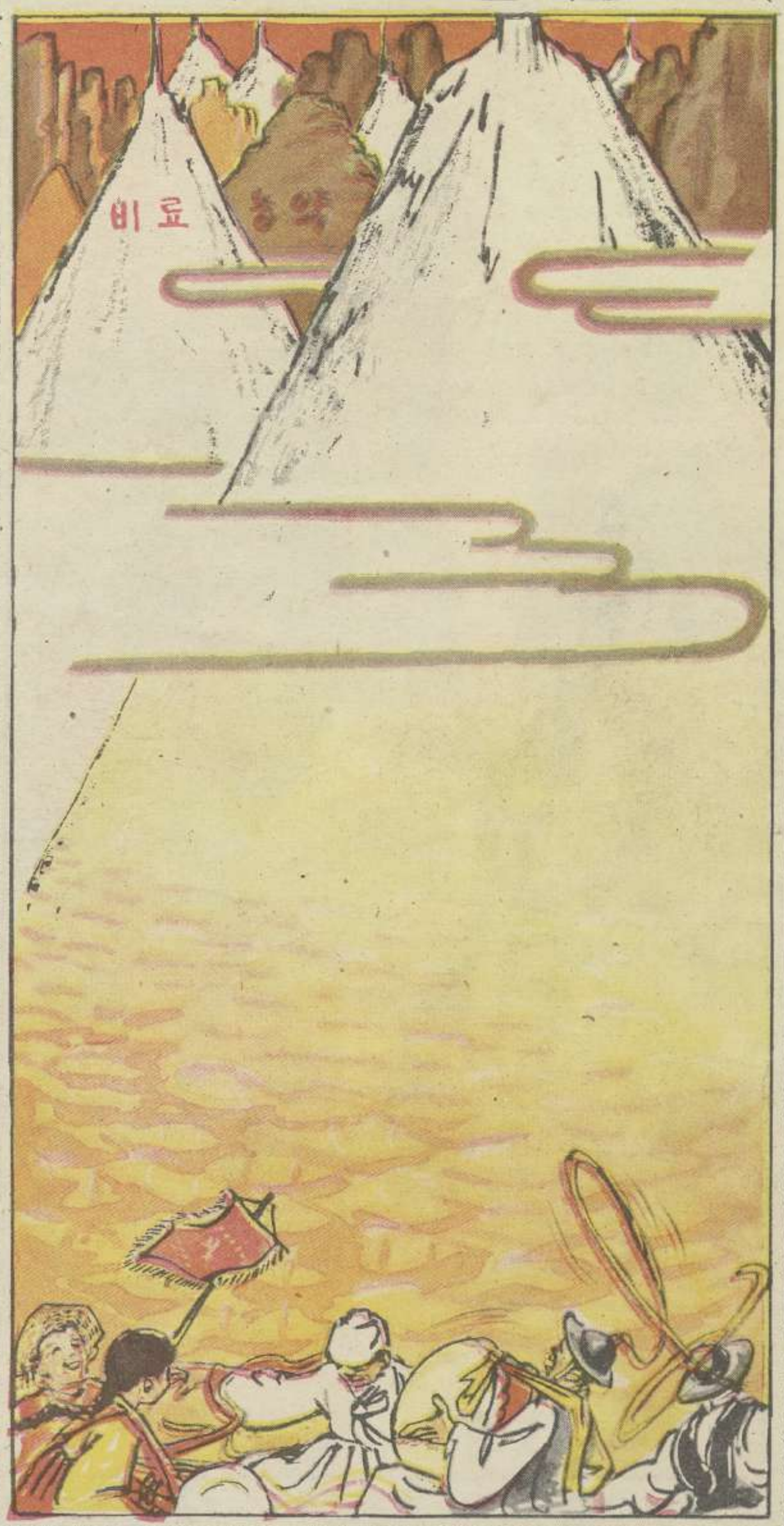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대오

안 창수 그림

북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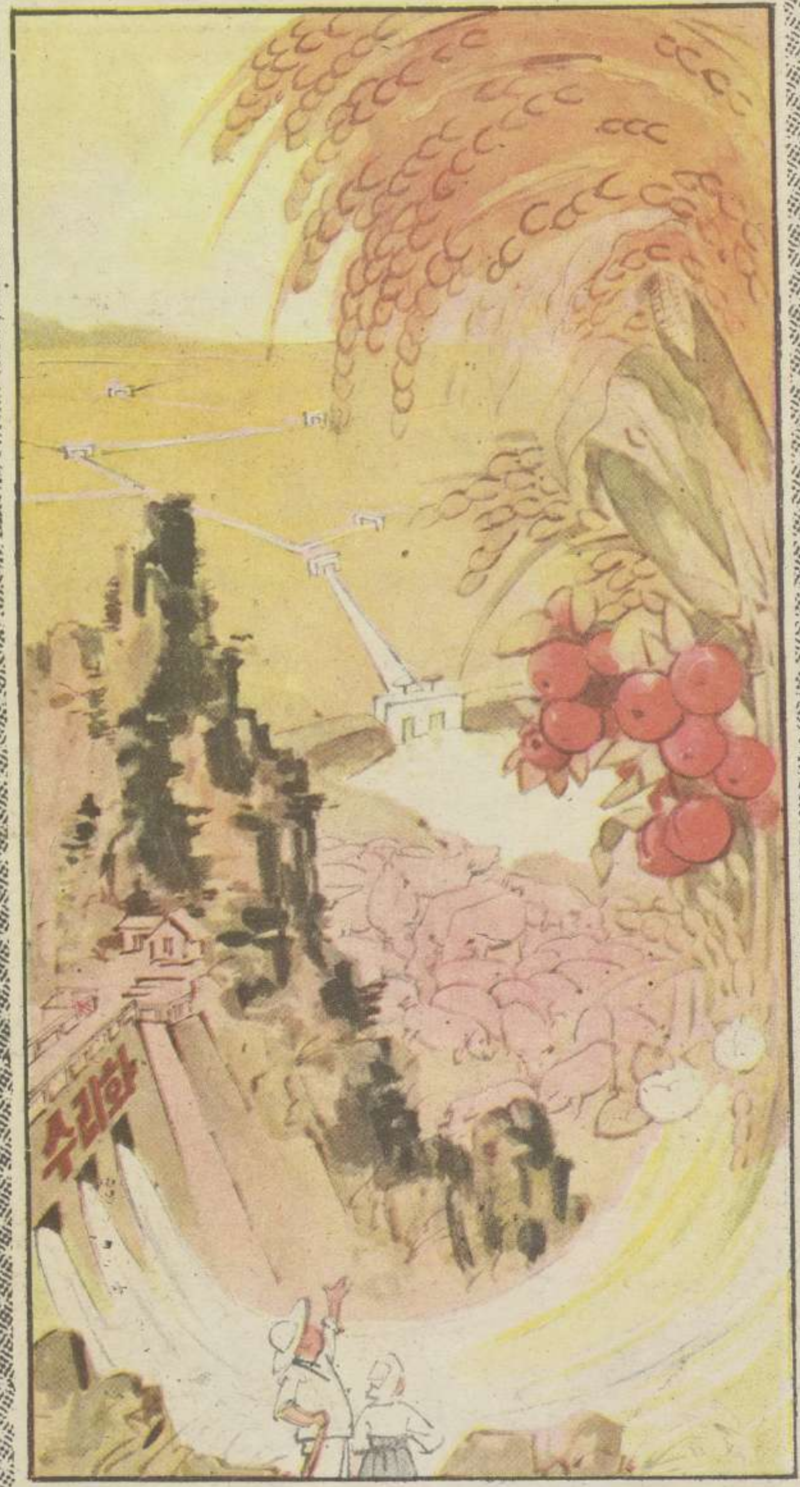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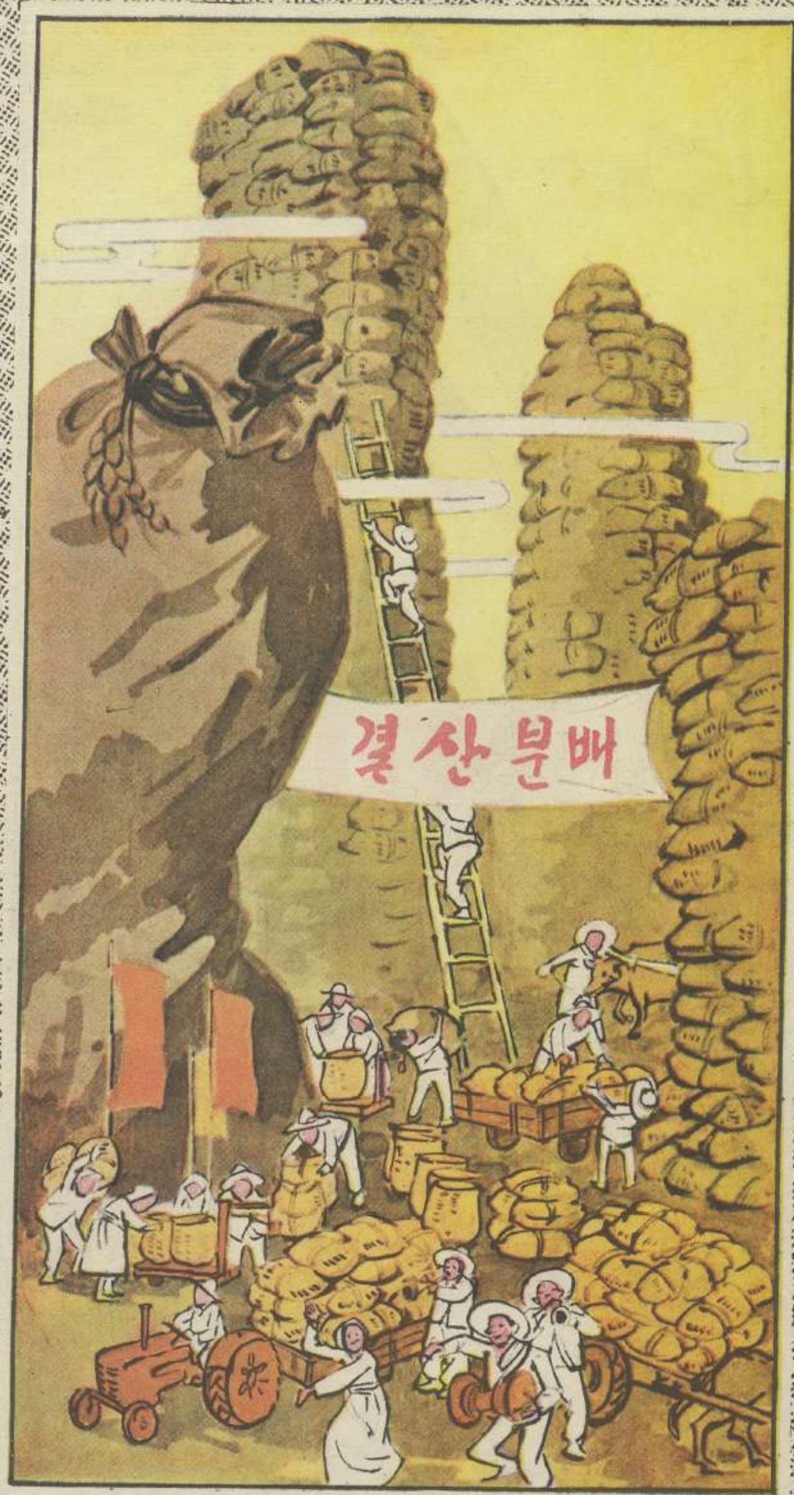


남조선

송 시영 그림

북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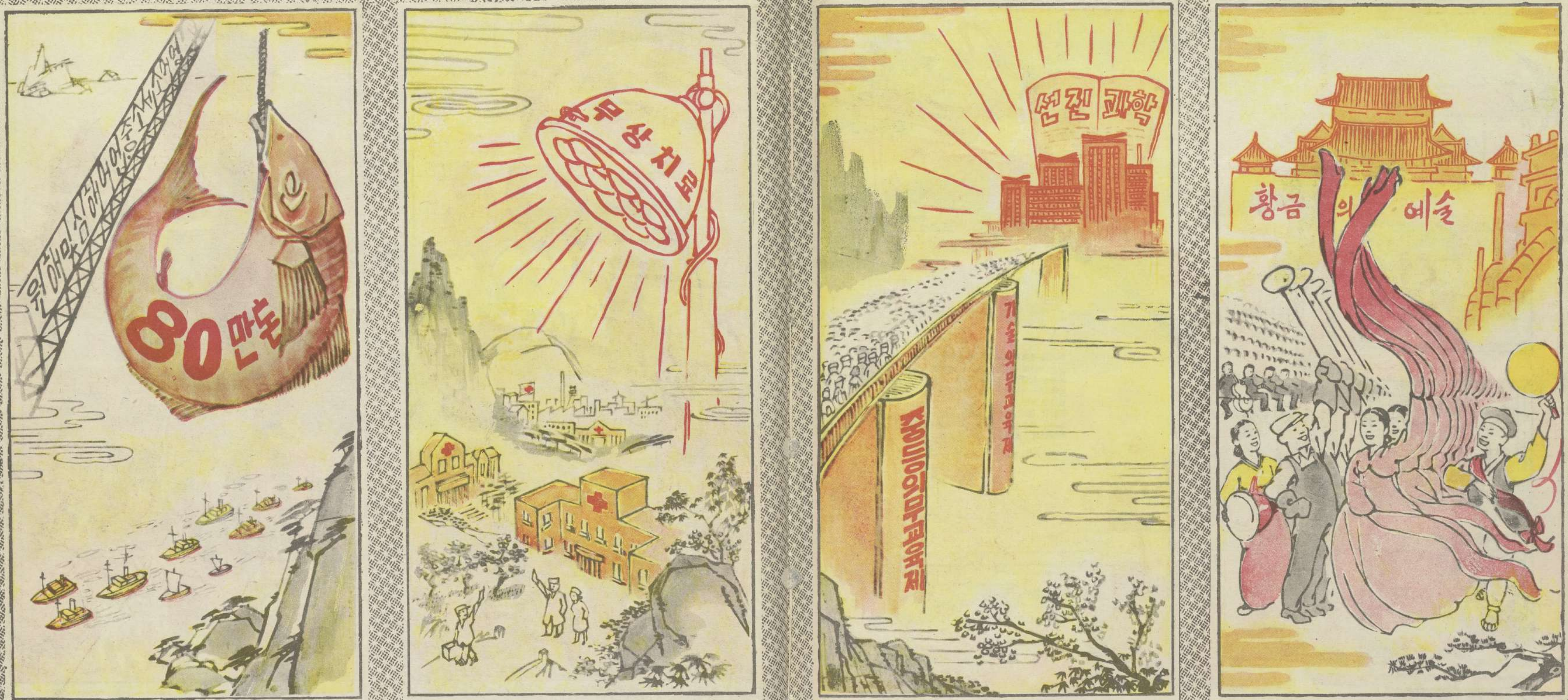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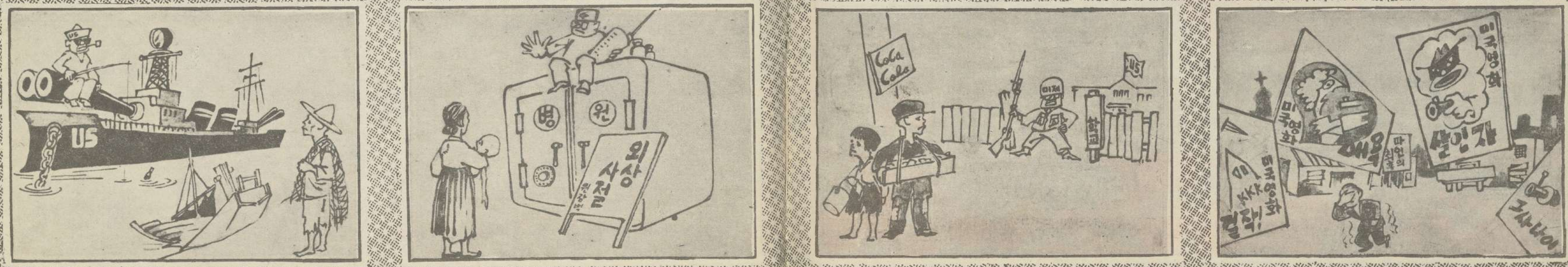
남조선

안 창수 그림

북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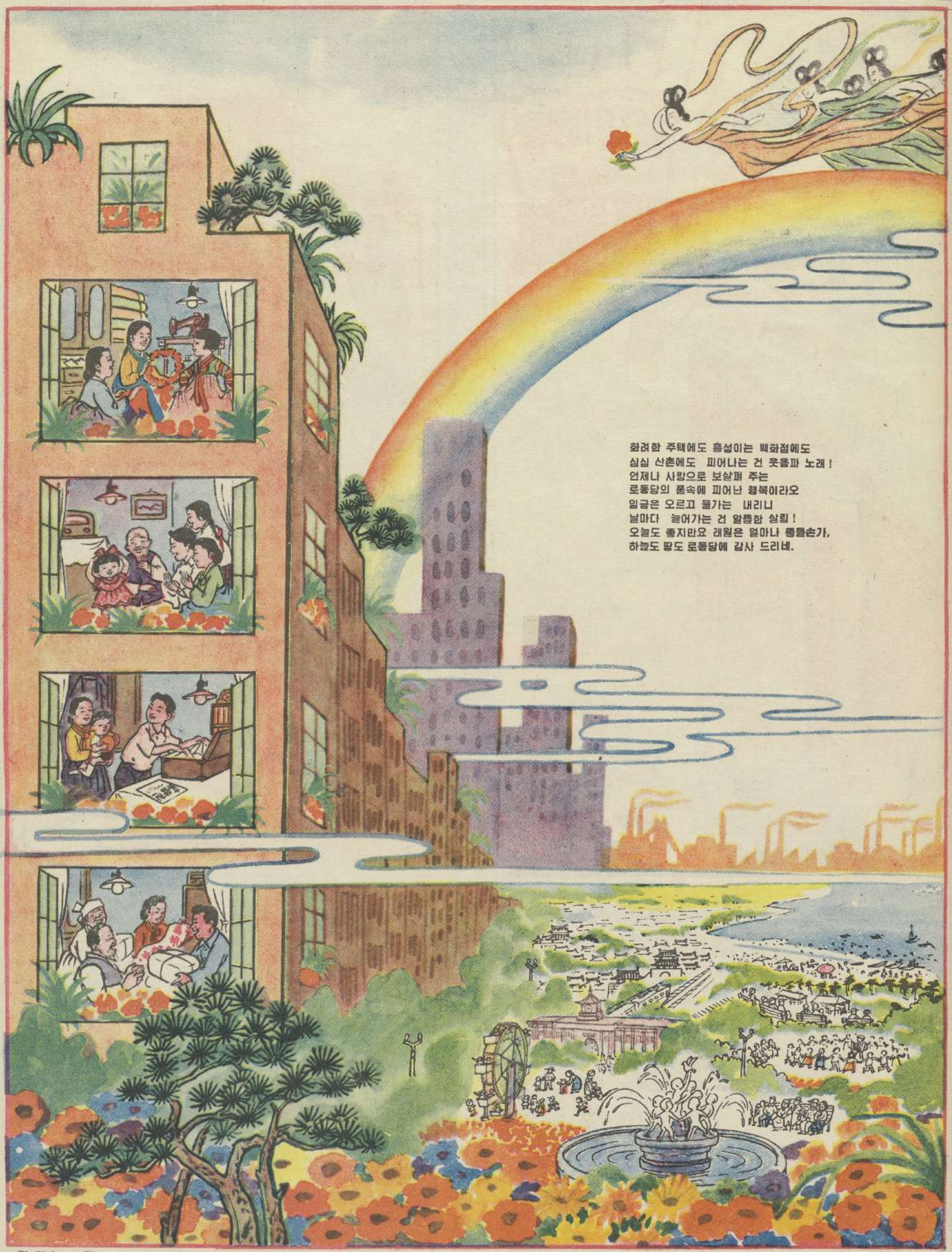


남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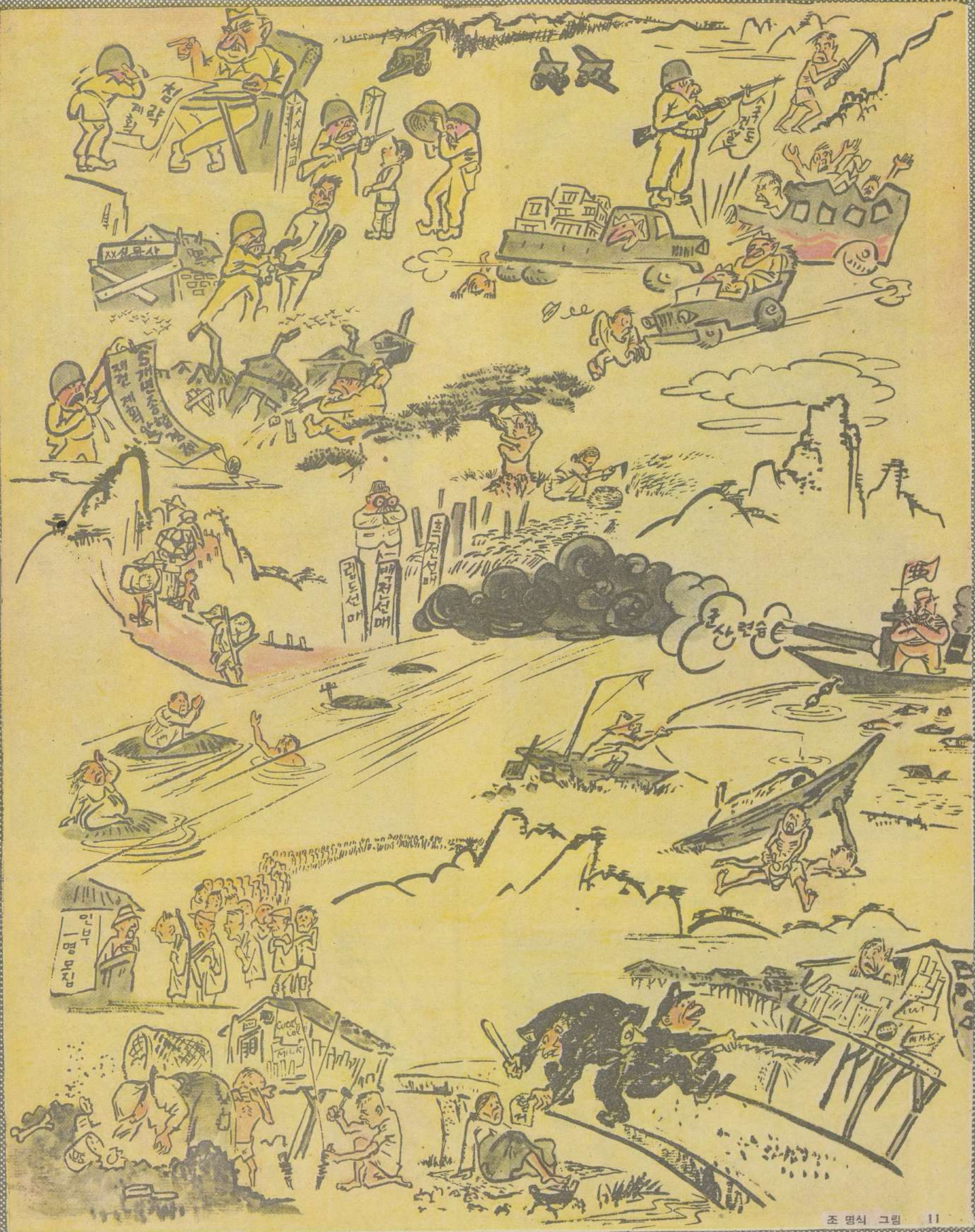


최영근 그림

북조선


화려한 주택에도 흥성이는 백화점에도
심심 산촌에도 피어나는 건 웃음과 노래!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로동당의 품속에 피어난 행복이라오
임금은 오르고 물가는 내리니
날마다 늘어가는 건 알뜰한 살림!
오늘도 좋지만요 래일은 얼마나 좋을손가,
하늘도 땅도 로동당에 감사 드리네.

남조선


XX학교
립도선매
인부 一명 모집
MILK

탄압 도구 제작 《대장'간》

남조선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반공법》을 비롯한 수다한 악법들을 조작한데 뒤'이어 최근 또다시 《…형사 사건 림시 조치법 중 개정 법률》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백 인균 그림

얼마나 굶주린 세월이 지나 갔드냐?
쑥대 우거어진 황야엔 까마귀만 울어대니 쇠사슬에 칭칭 감기운 호남벌이여, 남녘땅아!
끊어버리라 농노제 쇠사슬을, 불태워 버리라 양키들을.

 백 인균 그림

신 홍순

《여러분, 이제로부터 중앙에서 나오신 리 대위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장이 이렇게 소개하자 몸집이 뚱뚱하고 심술궂게 생긴 군복 입은 사나이가 앞에 나섰다.

《에— 다른게 아니구 요즘 우리 군사 정치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시란 겁니다. 그럼 우선 하나 하나 물어 봅시다. 어떻습니까?》

대위는 좌중을 둘러 본다. 그러나 모두가 묵묵히 앉아 있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다.

《왜 말들이 없소? 썩 잘했다던가, 지나친다던가, 잘 모르겠다던가 이 중에 어떤 거냐 말요?》

《아 오늘 저녁엔 아무런 얘기를 헌대도 절대로 처벌하지 않을테니까 툭 털어 놓구 이야기를 하시오》

《안 잡아 가요?》

《그럼요, 여론 조사인데 잡아 가다니…》

《대위》가 여기까지 얘기하자 뒤'구석에 앉았던 김 로인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평화 통일 지지자도 잡아 가구,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것두 잡아 가구, 배 고프다 소리만 해도 잡아 가구…》

《그런데 어떻단 말입니까?》 하고 《대위》는 눈알이 휘둥글해졌다.

《이렇게 사람 잡이는 잘 허는데 쌀 값은 못잡나요? 쌀 값은 대구 올라만 가구, 일 자리는 없구, 일 자리에서 쫓겨 나서 실업자는 매일 늘어만 가구…》

모두가 《옳쇠다》 하며 호응한다.

《하아, 그건 빨갱이 목소리니까 딴 얘기나 합시다》 하고 《대위》는 눈알을 굴리며 위협한다. 좌중은 아주 말 없이 조용하다.

《좋소, 먹는 문제가 나왔으니 말이지 지금 〈정부〉는 〈국가 재건 국민 범 운동〉이란 걸 전개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밥두 세 끼 먹던건 두 끼만 먹고, 두 끼만 먹던건 한 끼로, 밥 해 먹던 건 죽으로…》

이 말이 떨어지자 뒤에 누가

《죽 쑤어 먹던 건 랭수로…》 하고 받아치는 바람에 장내는 웃음이 터졌다.

너도 나도 사방에서 질문을 들이댄다.

《품 값도 안 주는 〈국토 건설〉에 뭘하러 나가겠소?》

《전탕 마스기만 허니 그거 무슨 판이요?》

《하아, 이거 질서가 없군!…》 《대위》는 벌벌 떤다.

《걸핏하면 엄벌이요, 체포요, 군사 재판이요 허니 어디 불안해서 살겠소?》

《옳쇠다》 하고 군중이 대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허어 이거 안되겠군! 구장! 어떻게 된 셈이야? 미리 잘 조직했다는게 이 꼴이야? 망할 자식!》

리 《대위》는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 이튿날 무장 경관들과 군대들이 쓸어 나와 동리 사람들을 몽땅 얽어 갔다. 그런데 다만 박 서방네 아들만은 안 붙들려 갔다. 그는 나면서부터 벙어리였던 것이다.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보장도 없는 《처방》

남조선 《군사 정권》이 아무런 밑천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경제 재건에 대하여 떠든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경제를 부흥시키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력에 의거하는데 있는 것이다.

백 인균 그림

수탈 《정권》

남조선 《군사 정권》은 《조세 징수 림시 조치법》, 《조세법 처벌법》을 비롯한 악랄한 세법을 련속 꾸며 내여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16년

오 홍택

일본 제국주의가 칼을 빼 물고 마지막 발악을 할 때의 일이다. 그 때 박 원상은 40 고개를 넘어 섰지만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힘팔이나 쓰는 장정으로 이름이 났다.

그는 첫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에만 달라 붙어 있었다. 해마다 기를 써서 농사를 지어 봐도 가을에 가면 마당에 떨어지는 낟알이라곤 통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였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살 도리가 없는 그 였다. 소작료와 공출을 내고나면 벌써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일제는 몇 집에 한짝씩 소를 바치라, 《국방헌금》을 내라 극성스럽게 굴었다.

낟알과 돈만 걷어 가는 것이 아니였다. 맏아들은 징용에 걸려 북해도로 끌려 가고 둘째 아들은 징병에 끌려간 후 소식조차 모르는 터이다.

두 아들을 빼앗긴 마누라는 가슴이 떨린다고 시름시름 앓더니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아침 구장이 주재소 순사를 데리고 박 원상의 집으로 찾아 왔다.

《여보 령감, 호별세를 아직 안 물었으니 어떻게 할 작정인가 엉?》

이제 설흔 대'살밖에 안된 구장 놈이 왜놈의 등'살을 믿고 호통치며 제법 눈까지 부릅떴다.

《네,나리님 나오셨수, 밥두 못 먹는 형편이 돼서 이거 황송합니다.》

박 원상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뭐이, 호별세를 내라는데 밥 못 먹는 타령이야, 칙쑈》

순사 놈은 머리를 숙인 박 원상의 뺨을 후려 갈겼다.

박 원상은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앞이 캄캄하였다. 아들을 둘씩이나 끌어 간 놈이 바로 이놈들이다. 공출로 낟알을 빡빡 긁어 간 놈이 이놈들이다. 더는 숨쉴 수 없게 목을 조이고 있는 놈이 바로 왜놈들과 그 앞잡이 놈들이 아닌가.

《빠가, 웨 쳐다 보는거야, 호별세나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나 해라》

순사 놈은 다시 호통을 치더니 또 박 원상의 뺨을 쳤다.

박 원상은 더욱 꿋꿋이 섰다 그의 저고리 앞자락은 흐르는 코'피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아픔을 감축 못했다.쌓이고 쌓인 모든 원한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고역에 시달려 억세여진 솥 뚜껑 같은 주먹이 번개쳤다. 한 평생 눌리고 짓밟힌 그가 그렇게 무서운 힘으로 돌연히 행동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단 한대에 너부러진 순사 놈은 네발을 버둥거리며 신음했다. 구장은 순사의 뒤 꽁무니에 나가 자빠졌다. 장승처럼 섰던 박 원상은 아직도 시원치 못한듯 황소처럼 씨근거렸다. 그는 천천히 순사와 구장의 옆으로 가더니 한손에 한놈씩 멱살을 쥐어 추겨들었다. 순사와 구장은 모가지를 비틀기운 닭처럼 파득거렸다. 박 원상은 두놈을 비'물과 오물이 흘러들어 썩고 있는 퇴비장에 처박았다. 퇴비장에 처 박힌 두놈은 똥통에 빠진 쥐새끼처럼 버둥거렸다.

그날 밤 박 원상은 경찰에 체포되여 갔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가서 8.15 해방과 함께 부락민들이 주재소를 치는 바람에 무사히 나왔다.

그 때로부터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방과 함께 바라던 모든 것이 물 거품처럼 사라졌다. 일제 대신 미제 강도놈들이 도사리고 들어 앉아 더욱 못살게 굴었다. 박 원상은 또 다시 시달렸다. 그는 끝내 굶주려 부황'증으로 죽었다. 왜놈 징병에 끌려 갔던 둘째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북해도로 징용 갔던 맏 아들 박 길호만이 구사 일생으로 간신히 돌아 왔다.

그의 나이도 이제는 40 고개를 넘었다. 그는 아비를 닮아서 기골이 장대하며 힘팔을 썼다. 박 길호는 아버지가 살던 그 집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

생활의 풍상은 더욱 거칠어 졌다.

그의 두 아들은 미제 강도들이 끌어 갔다. 즉 미제의 대포'밥인 괴뢰군에 강제 징집된 것이다. 안해는 부황'증에 걸려 누워 앓고 있다.

박 길호는 종일 논밭에 나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소작농을 했으나 그는 지금 소작을 부칠 땅마저 얻을 수 없어 품팔이를 하고 있다. 그의 논밭에는 《군사 기지》 패말이 박혔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내라는 것은 많았다. 다 넘어져 가는 집이라도 쓰고 있으니 가옥세요, 호구세요 하는 것을 비롯해서 하다못해 경찰 지서장 아들의 결혼식 부조요, 면장 생일 잔치 추념이요 하는 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잡부금이 들씨워졌다.

달라진 것은 일제 대신 미제가 들어 앉은 것이고 생활이 더욱 곤난해 진 것 뿐이다.

16년의 세월은 아버지 자리에 아들을 들여 앉혔다. 그의 오막살이 초가는 이제는 더는 견디어 낼 수 없다는 듯이 기우뚱해졌다.

박 길호는 퇴'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이 때 구장이 순경을 데리고 찾아 왔다.

《여보 령감, 국토 건설에 왜 안나오는 거야, 엉?》

구장의 호통이다. 16년전에 박 길호의 아버지에게 호통치던 바로 그 구장이 그때 버릇대로 호통을 쳤다. 지금은 50이 넘은 나이였으나 제버릇 개를 못 준다는 말과 같이 누구에게나 반말을 쓰며 여전히 호통질이다.

《굶어 처진 사람이 어떻게 나가오》

박 길호는 퉁명스럽게 쏘아 부쳤다.

《뭐야, 무슨 배'장으루 흰 소린냐 앙》 순경이 눈알을 굴렸다. 박 길호는 먼산만 쳐다 보고 앉았다.

아득히 먼 산마루에서는 미군 제트기가 으르릉대며 맴돌이치고 있었다. 16 년전에 박 길호는 저 산마루를 목탄차에 앉아 징병으로 끌려갔다.

《썩 일어서지 못할까》 구장이 다시 호통을 쳤다. 그러나 박 길호는 구장의 호통을 듣지 못했다. 그는 16년의 간고한 나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까뗌》 순경이 박 길호의 뺨을 후려쳤다.

박 길호는 벌떡 일어 났다. 그리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코'피가 저고리 앞자락을 적시고 있었다. 흡사히 16년 전의 아버지와 같았다.

《이 자식이 사람을 보면 어쩔텐야 앙》 겁에 질린 순경이 한걸음 물러서며 뇌까렸다.

박 길호는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 온 멸시와 모멸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놈들이 미국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아들을 끌어 가고 안해와 자기를 굶주리게 한다고 생각할 때 주먹이 떨렸다.—박 길호는 맑은 하늘에서 번개불이 이는 것을 보았다. 순경 놈이 다시 박 길호의 뺨을 친 것이였다.

박 길호는 아버지처럼 꼭 그렇게 행동했다. 돌맹이처럼 굳어진 주먹으로 두놈을 후려쳤다. 그는 두놈의 멱살을 잡아 추겨 들고 오물이 질펀한 퇴비장에 처 박았다. 구장은 16년만에 다시 그 오물장'《신세》를 입었다.

박 길호는 두놈을 쏘아 보다가 침을 뱉고 돌아 섰다.

박 길호는 이날 밤 체포되였다. 그는 류치장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발악이 심한 걸 보니 이놈의 세상도 며칠 못갈테지…이번에는 국군에 끌려간 아들놈이 돌아와두 다시는 이 꼴이 되지 않게 단단히 잡도리를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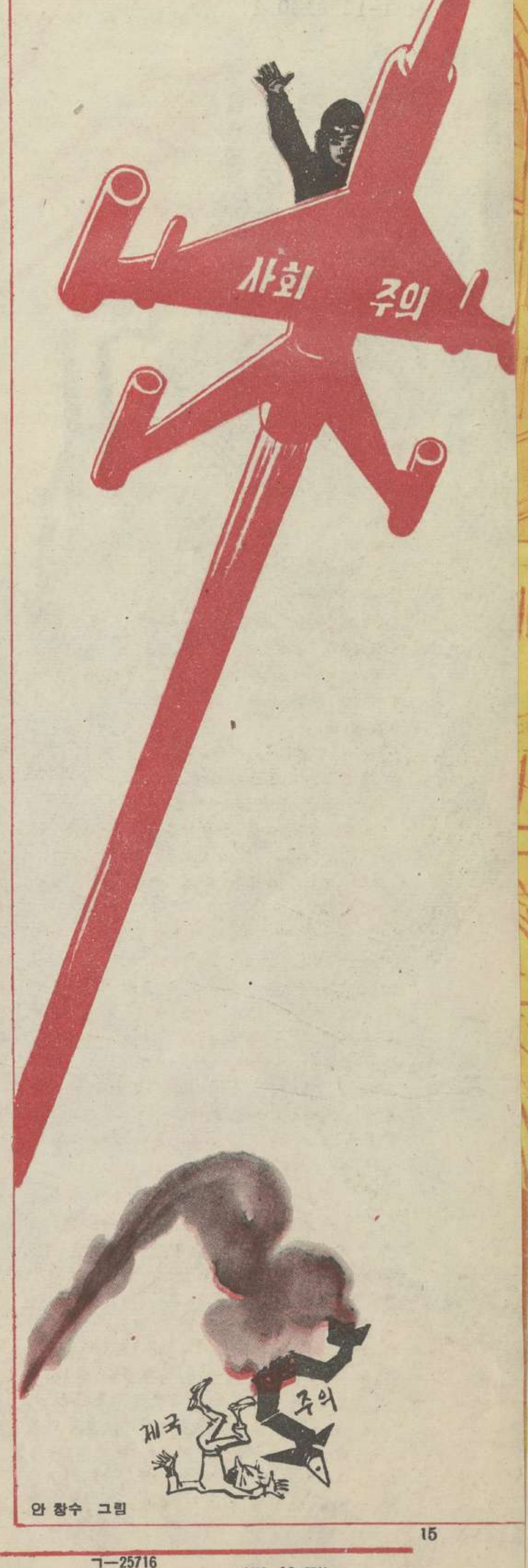
그는 류치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했다.

뉘 땅에서 왜놈이 제멋대로 날치였고 또 오늘은 양키들이 날치고 있는가 농토에다 군사 기지 말뚝을 박은자가 미제 강도들이고 아들을 괴뢰군에 끌어낸 자도 헐벗고 굶주리게 한자도 미제다.모든 것이 그 놈들 때문이다. 그 악귀놈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조선 사람 끼리 살아야 한다.이것은 16년간의 고난에 찬 세월을 통하여 얻은 그의 굳은 신념이며 결심이다. 그리고 또 깨달았다. 천대받고 권리없는 사람들이 주권을 잡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살 수 있으며, 그래야만 아들에게 다시는 불행을 물려 주지 않을 것이다. 박 길호는 훤한 앞날을 내다 보는 것 같았다.

막을 수 없는 빛발

안 창수 그림

엄연한 두 현실



안 창수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5716
발행 1961. 9. 20
(값 40 전)

박 승히 그림

L'X 1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ву
1 1-12 8280 2
8280 хельсаль
95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